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가)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이고 (나)는 고려시대 건축물인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이고 (다)는 르네상스 시대에 궁정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우아함에 대한 글이다. 하지만 세 제시문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가)는 아름다움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반면에 (나)는 아름다움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가)에서는 인위적으로 매화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이렇게 모양이 변한 매화는 모두 병든 것이고 빨리 죽을 것이라고 본다. 또 휘어지고 성긴 매화를 아름답게 보아서 매화를 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만드는 문인화가들을 비판한다. 그러한 그들의 성향을 괴벽한 취미라고 명하며 인위적으로 모양이 변한 매화가 만연한 실태를 그들이 끼친 폐해라 비판한다. 또 그러한 매화들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나)는 아름다움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나)에서는 무량수전을 예찬한다. 무량수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그럼에도 (나)에서는 무량수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아름다우며 무량수전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아름답다고 예찬한다. 또한 무량수전의 주변 자연환경은 모두 무량수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자연환경은 무량수전 안에서 있을 때 더 편하게 보이며 무량수전이 주변 자연 환경을 더욱 빛내준다고 한다. 더하여 석축들은 계산된 계획으로 쌓아진 것이지만 그 석축들을 통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의 생각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가)와는 달리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다)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 인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다)에서는 우아함은 타인을 의식하고 계산 끝에 나와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무량수전은 자연 속 인위적 건축물로서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 (다)의 우아함은 감춰져야 한다. 우아함은 표면에 드러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야 한다.(1025자)

문제2)

제시문 (라)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이 물방울 다이아몬드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여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변하면서 외관상의 모습이 더 보기 좋아졌다.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공됨으로써 경제적 가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다이아몬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 원석은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공되어서 자신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원석일 때는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못하여 내쳐지고 홀대 받을 수 있었지만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공되어서 사람들에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져 오랫동안 보관되고 전승되어 더 오래 존재 할 수 있다. 또 다이아몬드의 본질을 생각하면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공되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순리를 따르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가)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 (가)에서는 자연인 매화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에 대한 근거를 인위적인 변화는 매화를 병들게 만들고 빨리 죽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라)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공하여 외관상으로 보기에 더 나아졌을 뿐 아니라 가공 후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 더 오래 존재되고 전승될 수 있다. 또 (가)에서는 매화를 변화시켜 돈을 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공된 후 경제적 가치는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치 않다. 더하여 (가)에서는 동여매지고 화분에 심어진 매화를 동여매었던 것은 풀고 화분을 깨뜨려 순리대로 사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조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라)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공됨으로써 인위성을 얻었지만 물방울이라는 자연적 모양으로 가공되어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87자)